



李元榮·金貞順 박사부부

<연세의대 미생물학교실>

<서울대 보건대학원 역학담당>

스승과 제자의 만남 「원인균 렙토스피라」공동연구

연세의대 미생물학교실 李元榮교수와 서울대 보건대학원 역학담당 金貞順교수는 스승과 제자가 만나 하나로 결합한 과학자 부부이다. 슬한 사연을 딛고 70년 결혼한 이들 부부교수는 지난 84년 우리나라에서 10년간을 괴질로 분류되었던 질병의 원인균이 렙토스피라라는 사실을 공동으로 발표해 세계적인 관심을 모으기도 했다.

지 난 84년에 우리나라에서 10여 년간을 괴질로 불리며 정체화 확인되지 않았던 질병이 그 모습을 드러냈다. 이 질병의 원인균은 '렙토스피라'였고 이를 공동으로 연구하여 확인한 사람은 연세의대 미생물학교실 이원영(56세) 교수와 서울대 보건대학원 김정순(63세) 교수 부

부였다. 렙토스피라 발견시 김박사는 몇년간을 이 질병이 렙토스피라일 가능성에 대해 연구해 왔고 가설을 세워 역학적으로 이를 확신한 상태였다.

10년괴질 원인균 공동발견

이때 김교수의 역학적 가설을 확

인하고 원인균인 렙토스피라를 동정해 낸 것이 바로 이교수였다. 이들 부부는 의학계에서는 널리 알려진 부부학자이며, 렙토스피라균 발견에서 보듯 학문과 생활에서 매우 손발이 잘 맞는 부부라고 스스로를 평한다. 이들 부부의 결혼은 당시 주변의 많은 관심을 모았다. 이들의 만남이 스승과 제자의 결합이라는 흔치않은 경우였기 때문이었다.

이원영교수는 70년 서울대 대학원에 입학하며 김교수와 처음으로 만났다. 김교수는 당시 질병역학을 강의하고 있었다. 이때만 해도 이들 두사람은 그저 평범한 스승과 제자

사이였다. 그해 여름에 연구를 위해 함께 제주도를 방문하게 되며 이교수는 김교수에게 깊은 인상을 받게 된다. 학문을 대하는 방법과 태도, 정열을 배운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닌데 같이 생활하며 많은 감명을 받게 됐다는 것이다. 이때 이교수는 결혼을 한다면 김교수와 같은 사람이 아니라면 하지 않겠다고 마음먹게 됐다고 한다. 그리고 결심을 굳힌 이교수는 김교수에게 프로포즈를 했으며, 신분과 나이 등 여러 면에서 말도 안되는 소리라는 것이 김교수의 반응이었고 아예 말상대조차 해주지 않았다. 엄한 집안에서 자란 탓에 남자에 대해 심한 거부감을 가지고 있었던 김교수는 유학생활동중에도 이성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옆에도 못 오게 할 정도로 결벽증이 있어 'Don't touch me'란 별명까지 얻을 정도였는데, 이런 김교수에게 이교수가 프로포즈까지 하게 된 것은 김교수가 이교수를 제자 이상으로는 생각지 않았고 편하고 친하게 대했기 때문이다.

연관된 전공, 서로 도움받아

결국 집안의 반대 등 우여곡절 끝에 70년 9월 결혼식을 가졌다. 이교수는 우리 사회에서 당시 학벌과 나이 등에서 김교수가 처지는 사람하고 결혼했다는 것에 대해 깎아 내리는 경우도 많아 처음에는 불편한 경우가 많았다고 하는데, 이들 부부는 같은 일을 공동으로 해낼 수 있고 학문에 대한 철학도 같이 할 수 있다는 것이 너무도 즐겁다고 한다.

무엇보다도 이들 부부는 전공이 서로 연관된 일이라 서로가 많은 도

움을 받는다. 또한 항상 생활을 함께 하다보니 연구과제에 대한 의견 교환이 일상사가 되어 혼자서는 생각지 못했던 아이디어가 만들어지는 경우가 많다는 것도 이들 부부의 장점이다. 학문적으로도 모르는 사람과 공동연구를 하는 것에 비해 욕심이 적어지고 의견교환이 자유로워 도움이 많이 된다. 물론 의견충돌이 없지는 않지만 부부이기 때문에 대개 좋은 방향으로 조정된다.

이처럼 이들 부부는 남들에 비해 두세배 이상의 이득을 보고 있다고 자평하는데, 불편한 점도 없는 것은 아니다. 둘의 사고방식이 너무도 비슷해 과학적 지식과 아이디어에 서로 동의해 세미나 등 공식석상에서도 같은 의견을 제시하다 보니 부부와 다른 학자들간의 의견이 다를 경우, 부부이기 때문에 동조하는 것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

또한 학맥을 많이 따지는 우리나라 학계의 특성상 각자의 학교에서 다른 학교 사람과 연구를 같이 하는 것에 대해서도 별로 좋아하지 않는 것도 조금은 불편하다. 그러나 두사람은 이러한 학맥 갈등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도 둘만의 장점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에이즈 원인체 분리 등 연구

오래 전부터 주말이면 두사람은 서울근교에 마련한 농장으로 간다. 밭을 갈고 가꾸는 주말농사가 이들에게는 이제 아주 익숙한 일이 되었고, 학교와 집과 시골농장을 오가면서 생활 속에서도 자연스럽게 학문에 접하는 방법을 배우고 있다. 밭의 풀을 뽑을 때도 '벌레는 왜 끼는

가' '왜 여기서 살까' '어떤 환경에 어떤 풀이 자라는가' 등 모든 현상에 대해 자연스럽게 의견을 나누게 되는데 이런 생활이 이들에게는 즐거운 휴식이 된다. 이런 생활 속에서 이교수는 우리나라에서는 처음으로 후천성면역결핍증(AIDS) 원인체인 HTLV-Ⅲ/LAV를 분리해 내는 등 성과를 만들어냈고, 김교수는 대표적 역학자로 자리 잡았다. 두사람은 학문 발전을 위해 두사람과 같은 후배들이 많이 나오는 것도 괜찮은 일일 것이라며 웃는다.

이교수는 63년 충북대 농대를 졸업하고, 70년 서울대 보건대학원을 거쳐, 76년에 미국 존스홉킨스대에서 이학박사 학위를 취득한 후, 77년부터 연세의대 미생물학 교실에서 근무해 오고 있다. 87년에는 암치료를 위한 광활성인자(Chlorophyll derivatives)를 누에 분변에서 추출하는데 성공했고, 91년에는 Coxiella burnetti 가 털세포 백혈병 세포의 원인 인자임을 실험적으로 증명하여 인간혈액 림프구가 Coxiella burnetti의 숙주임을 증명해 백혈병 해결의 실마리를 푸는 등 학계의 관심을 끌고 있다.

김교수는 60년 서울의대를 졸업하고, 67년에 미국 존스홉킨스대에서 보건학박사 학위를 취득한 후, 66년부터 서울대보건대학원에서 근무하고 있는데, 서울대보건대학원 원장과 대한예방의학회장을 역임했으며, 96년부터는 한국에이즈퇴치연맹 회장을 맡고 있다.

슬하에 출가한 딸 규선양(28세)을 두고 있다. ㉮

송해영<본지 객원기자>